

범죄소설의 역사는 부르주아 사회의 이면사

에르네스트 만델의 《즐거운 살인》을 읽고

임헌영 | 중앙대 국문과 겸임교수



이동연 옮김
이후/A5신/296면/13,000원

경제적으로 중진국에 진입하는 나라들에서는 대개 증권에 대한 관심과 함께 추리문학 붐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드문 예외가 한국이었다. 경제지표로만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불륜이 순수문학인 양 착각하고 있는 엉터리 문학풍토에서 해방돼 추리문학 전성기를 맞이할 터인데도 여전히 한국소설은 러브호텔 안팎만 서성거리고 있다. 군부독재가 낳은 달갑지 않은 유산이다.

추리소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행하는 문학장르 추리소설은 결과적으로 범인이 밝혀진다는 공식 때문에 악을 응징하고 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사회 체제라야만 성행할 수 있는 생리구조를 갖추고 있다. 비록 지배계급이 범죄를 은폐하는 공범자일망정 시민사회의 과반수가 선량하고 악을 발본색원하려는 의지가 존재하는 사회라야 추리문학은 확산될 수 있다. 정의가 억압당하고 불의가 출세하는 사회구조 아래서 추리문학은 설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관점에서 말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추리문학의 후진국이다. 트로츠키주의자 혹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로 더 유명한 에르네스트 만델이 《즐거운 살인—범죄소설의 사회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도 이런 맥락과 그리 멀지 않다. 걸보기로는 “추리소설은 신중간계급의 아편”(마르크스)으로 “현실 도피성 오락물에 불과할 뿐”(만델)인 것으로 비칠 수도 있으나, 내막은 “부르주아 사회가 범죄 사회이기 때문에” “범죄소설의 역사를 문학사보다는 사회사로 간주”하며, 당연히 이 소설들은 그 사회의 갈등과 모순을 반영한다는 전제에서 이 책은 출발한다.

만델은 역사학자 홉스봄이 ‘의적’(이 책에서는 ‘선한 악당’, 홉스봄은 Social bandits로 부름)이라 부른 로빈 후드에서 현대 추리소설의 기원을 찾고 있다. 이후 피카레스크 소설(Picaresque novel)을 거쳐 근대자본주의가 궤도에 오르면서 “‘선한 악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의 범죄 행위는 불한당의 짓거리로 취급받는다”고 규정하는데, 바로 이런 과도기적 인간상이 장 발장 같은 존재라고 해명한다. 그는 비록 현행법으로는 범죄자이나 동정을 받을 수 있는 인물로 부상하지만, 1850년대 이후의 사회는 아예 범죄 행태가 달라진다고 증언한다. “감옥에서 채무자들이 점

차 줄어드는 대신에 사기꾼, 절도범, 강도, 자객, 살인자들이 늘어나게 되자 법적 강제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지위가 덩달아 높아졌”고, 소설은 에드가 앨런 포를 선두로 본격적인 명탐정의 시대로 접어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세계대전 전후로 추리소설 대중화·통속화돼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조직 범죄의 시대가 도래”하자 추리소설은 “탐욕과 복수 같은 개인의 심리적 동기로 인한 범죄는 급격히 단절”되고, “부유층들이 저지르는 사회 부패가 그 잔혹성과 더불어 플롯의 중심”이 돼 “짜구려 잡지”에 등장, 부쩍 대중화·통속화했다. 곧 하류층을 범죄자로 부상시키던 낡은 추리소설 구조를 탈피하고 상류층 범죄 폭로전으로 변모한 현상을 만델은 중요시하면서 이 시기에 나타났던 이데올로기적 작품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내 범죄소설은 “계급투쟁이 격화되자” 체제 옹호를 위해 “경찰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고, 그 목적을 위해 전통적인 사실탐정을 추방하고 “경찰이 영웅 대적”을 받는 추리문학으로 변모한다. 냉전체제에서 추리소설은 ‘국가 범죄’ 단계로 변모, “조직범죄와 대기업, 그리고 국가 사이의 공생관계”가 구축돼 모든 범죄의 교묘한 실행과 그 격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수사기관을 등장시키고 있다.

이런 변천사를 통해 만델은 “범죄소설이 더 이상 독자들로 하여금 부르주아 사회의 정당성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문학 장르로 기능할 수 없게 되었다”고 결론 내리는데, 말을 바꾸면 민주사회가 되려면 추리문학이 성행해야 된다는 순환논리가 성립한다.

물론 만델은 경제학자로 이미 범죄소설의 범위가 우주로 확대해 버린 후기 자본주의의 체제옹호 기능이나, 미국 일본도의 세계화 이데올로기를 담아내는 추리소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세계사에 대해 낙관하고 있고, 아시아 문화권의 공안(公案)소설의 중요한 기능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추리소설의 본질과 사회적 기능, 변천사, 구조 등을 가장 객관적으로 분석, 연구의 차원으로 승화시킨 업적으로 찬양받아 마땅할 것이다. ■

임헌영 교수는 중앙대 국문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중앙대 국문과 겸임교수로 재직중이고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문학과 이데올로기》《한국현대문학사상사》 등을 펴냈다.